

■ 한라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 /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함께해서 즐거운 마음, 기부로 이어져”

제주숨다리·제주한울RC
미혼모·장애인시설 지원
올해 취약계층 아동 후원

전세계 120여만명의 회원이 소속된 로타리클럽은 제주도에 77개 클럽이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 중 제주숨다리로타리클럽(이하 숨다리RC)과 제주한울로타리클럽(이하 한울RC)을 한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기획한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캠페인 7호 주인공으로 소개한다.

한국의 에메랄드로 불리는 '숨다리'는 하얀 꽃잎 때문에 순수함을 상징한다. 한라산에 서식하는 숨다리처럼 제주에서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숨다리RC는 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06년 12월 창립해 현재 95명의 여성 회원이 활동하



올해 공동사업으로 제주도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아동지원지원을 후원하고 있는 제주숨다리·한울로타리클럽은 지난달 김치 봉사도 진행했다. 사진=초록우산 제공

고 있다.

올해 14대 회장에 취임한 강영선 회장은 "20명의 회원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있고, 다른 회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함께하는 로타리가 돼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숨다리RC는 매년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 도움을 손길을 이어가고, 2014년부터는 해외봉사에도 나서고 있다. 매해 보내 타로타리클럽과 함께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 의료지원 및 우물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9년 종합 최우수

클럽상을 수상했다.

숨다리RC는 봉사정신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에 한울RC를 창립하고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4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울RC는 각계각층의 회원들이 모여 봉사에 힘쓰고 있다. 두 클럽은 올해 공동사업으로 제주시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아동지원지원을 후원하고, 10월에는 김치봉사로 진행했다. 한울RC 회원 11명은 김장 봉사에 숨다리RC와 나눔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자가 됐다.

한울RC 강성부 회장은 "회원들이 선뜻 후원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했을 때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기부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회원들과 함께 지역을 위한 봉사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후원문의=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064-753-3703)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가을 운치... 차귀도와 노랑 들국화 13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해안변에 만개한 노랑 들국화가 멀리 보이는 차귀도와 함께 한폭의 그림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공직 내부 '폭언·업무 떠넘기기' 여전

도, 6급 이하 전직원 대상 피해 실태 조사
접수된 22건 분석 결과 7건 '갑질'로 판단

폭언, 고성부터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등 제주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내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갑질'을 실시한 결과 총 22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7건을 갑질 유형으로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직 내 갑질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사적업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

기, 막말 및 인격무시,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갑질 사례들이 확인됐다. 가해 직급도 일부 관리자부터 일부 실무자 직급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갑질 행위에 대해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 갑질인 경우는 무관용·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말까지 '갑질예방 내부 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 분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조직(상담원, 고

충심의위원회)를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해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수능 보는 날, 체감온도 '뚝'

강한바람 영향 아침 체감온도 6℃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제주지역 아침 체감온도는 최저 6℃를 기록하는 등 올해도 매서운 입시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수능일인 14일 제주지역 아침기온은 10~12℃, 낮 최고기온은 12~15℃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 9~11℃ 보다는 다소 높지만,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공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6~9℃ 정도의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지점 아침 최저기온/체감온도는 제주시 12℃/9℃, 서귀포 10℃/8

℃, 성산 10℃/6℃, 고산 11℃/8℃ 등으로 예보했다.

올해는 최근 10년 이래 아침 최저기온이 3번째, 낮 최고기온은 2번째로 낮은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14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 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7시 전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수험생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성공개최를 축하합니다.

우리 곁에 숲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산림조합금융이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방법

자격요건 산림소유자 또는 임업인
가입방법 주소지 또는 산림 소재지 사업장 조합에 가입
가입문의 제주시산림조합 ☎ 064)742-4883
서귀포시산림조합 ☎ 064)766-4544

일반사업

- 산림경영지도
- 산림조사
- 임산물직매장 &유통센터
- 목재집하장
- 산림사업
- 묘지관리
- 나무전시판매장
- 면세유지원

상호금융

- 예·적금
- 중소기업자금대출
- 농어촌진흥기금대출
- 공과금수납
- 일반대출
- 정책자금대출
- 신용카드

SJ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064)712-9211 SJ 제주시산림조합 ☎ 064)725-4883 SJ 서귀포시산림조합 ☎ 064)732-7544